

## 그루지야의 혁명가에서 소련의 독재자로: 스탈린의 신화와 현실

김 남 섭

(가톨릭대 국사학과)

### 1. 스탈린 생애 다시 보기

20세기의 다른 “사악한 독재자들”과 마찬가지로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Иосиф Сталин)은 그가 살았던 당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어 왔다. 그의 생애와 정책, 그리고 그의 시대를 둘러싸고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책들이 집필되었다. 또 그의 독특한 성격은 역사학자와 심리학자, 철학자 등의 진지한 탐구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작가를 비롯한 예술가들의 상상력도 자극하였다. 한편으로 그는 일반적인 찬양의 대상이었다. 예를 들어, 스탈린의 생애 동안 수많은 거리들이 그의 이름을 딴 것은 물론이거니와 총 여섯 곳의 소련 도시들이 도시 자체의 이름을 바꿔 그를 기릴 정도였다.<sup>1)</sup>

주 제 어: 그루지야 혁명가, 민족인민위원, 소련 독재자, 수정주의적 견해, 스탈린 전기, 정치국, 총서기

Georgian revolutionary, Commissar for Nationality Affairs, dictator of the Soviet Union, revisionist view, biography of Stalin, Politburo, General Secretary

심지어 대숙청이 한창이던 1937~38년 무렵에는 그의 총복으로서 당시 내무 인민위원이었던 예조프(Н. И. Ежов)가 모스크바를 “스탈리노다르”(Сталинодаp)로 개명하자는 계획을 내놓았으나 스탈린 자신이 이를 거절하기까지 하였다.<sup>2)</sup>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는 자신의 나라를 근본적으로 망쳐놓은 악마의 화신이 기도 하였다. 이런 이미지는 고르바초프에 의해 글라스노스치 정책이 채택되면서 소련식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이 고조된 1980년대 말 이후에 특히 두드러졌다. 이제 스탈린은 더 이상 “사회주의의 위대한 건설자”가 아니라 러시아 사회가 당면한 모든 악의 근원으로서 일방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sup>3)</sup>

하지만 이처럼 스탈린을 둘러싼 끊이지 않는 관심에도 불구하고 양 극단적인 평가를 넘어서서 그의 생애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밝혀주는 적절한 전기는 아직 씌어지지 않았다. 1917년 10월 혁명 이전 그의 삶은 비합법적 지하 활동을 위주로 하는 직업적 혁명가의 특성 때문에 상당 부분 배일에 가려질 수밖에 없다. 러시아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체제가 건설된 후 마침내 권력의 최정점에 도달한 독재자로서의 스탈린 삶도 크레믈 정치로 특징지어지는 소비에트 정책 결정의 은밀한 성격으로 인해 여전히 연구자들 사이에 격심한 논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스탈린 생애 전체를 재구성하는 전기를 집필하면서 부딪치는 이러한 어려움은 그가 자신의 결정이나 행동의 개인적 동기를 밝혀줄 수 있는 어떤 내밀한 사적인 편지나 비밀 일기도 남기지 않았고 또 그의 내면을 들여다본 측근들의 신뢰할 만한 어떤 목격담도 없다는 데도 기인하는 바 크다. 게다가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볼셰비키의 특유한 정치 문화는 개인이 자신의 욕망이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데 매우 적대적이어서 스탈린과 그 추종자들은 자신의 생활이나 그와 관련된 여러 현상에 대해 가능한 한 침묵을 지키라는 암묵

1) 다음의 도시들이 그렇다. 유조프카/스탈리노(1924년), 차리힌/스탈린그라드(1925년), 두산베/스탈리나바트(1929년), 쿠즈네츠크/스탈린스크(1932년), 츠히니발리/스탈리니리(1934년), 보브리키/스탈리노고르스크(1934년).

2) Громан (2007년 3월 1일 인용) 참조.

3) 이 점에 대해서는 특히 Davies(1989)의 5장과 같은 저자가 1997년에 발간한 *Soviet History in the Yeltsin Era*, New York: St. Martin's Press의 12장을 참조하라.

적인 사회적 압력도 받았다(Suny 1991: 48).

그렇다고 지금까지 연구된 스탈린의 삶이 추측과 상상을 위주로 재구성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동안 역사학자들은 소련에서 공식적으로 간행된 정부와 당의 결의안이나 법령, 정치가들의 주요 회의 속기록과 공식 연설문, 스탈린 사후에 등장한 그에 비판적인 회고록과 소련 내 지하 출판물인 사미즈다트(самиздат), 망명자들의 증언 등에 의존하여 가능한 한 세밀하게 독재자의 삶을 조명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소연방이 몰락한 후 언론의 자유화 바람을 타고 개방되기 시작한 대통령 문서고의 비밀문서 등 새로운 자료들은 스탈린의 생애를 둘러싼 기왕의 논란을 일거에 잠재울 결정적인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기는 하였지만 스탈린의 사상과 행동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크게 진척시켰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밝혀진 스탈린의 삶은 그가 매우 모순에 찬 복잡한 인물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이 글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의 스탈린의 생애 전체를 간략히 기술하면서, 확신에 찬 사회주의 혁명가이자 누구도 넘보지 못할 권력을 축적한 독재자로서 우리가 갖고 있던 스탈린에 대한 기왕의 여러 이미지와 평가가 최근의 여러 연구에 의해 어떻게 다각도로 수정되고 있는지를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작업은 관련 학계에 스탈린의 삶을 새롭게 밝혀주는 독창적인 기여는 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스탈린 체제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체제를 뒷받침해주는 인물 자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하는 현 한국의 학계에 그의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탈린이라는 독특한 개인에 대한 연구가 불가피함을 환기시킬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2. 어린 반항아 스탈린: 1878~1893

본명이 이오시프 비사리오노비치 주가시빌리(Иосиф Висарионович Джугашвили)인 스탈린은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1879년 12월 21일(구력 12월 9일)(도이처 1972: 14; McNeal 1984: 63; Ulam 1989: 16)이 아니라 그보

다 1년 앞선 1878년 12월 6일,<sup>4)</sup> 카프카스 산맥 남부에 위치한 그루지야의 수도 트빌리시에서 서쪽으로 75킬로미터 떨어진 고리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소소(Coco)라고 불린 스탈린은 총명하고 부지런하지만 부모의 뜻을 수시로 어기는 반항적이고 호전적인 아이였다. 그는 가정에서 폭군이었던 아버지의 말은 물론이고 엄격하지만 자애로웠던 어머니의 말도 잘 듣지 않았으며 친구들 사이에서도 보스 기질은 있었지만 “변덕스럽고, 교활하며, 거칠고, 화를 잘 냈다”(서비스 2007: 50-54). 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스탈린이 집안을 돌보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일상에서 도전적인 태도를 지니면서 마침내 체제 전체에 저항하는 혁명가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주로 스탈린의 인격 형성기에 가족 관계가 그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하지만 최근 가족의 울타리라는 직접적인 환경 외에도 스탈린이 1912년 반체제 활동의 혐의로 체포되어 시베리아로 유형당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그루지야와 아제르바이잔을 비롯한 카프카스 지방의 특수한 환경이 청소년 시절의 그의 인성에 미친 영향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이 등장하였다. 그 중의 한 명인 미국인 역사학자 알프레드 리버에 따르면 19세기 말 이 국경 지방의 사회문화적 환경은 스탈린의 십대와 이십대 초의 시절을 규정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Rieber 2005: 19-24). 리버는 스탈린이 태어나던 당시 카프카스 남부의 변경 사회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었다고 보았다. 첫째, 외국 및 국내의 적들에 맞선 반란과 음모 및 저항 운동의 장기적인

4) 이 날짜는 러시아인 역사가 스피린(Л. М. Спирын)이 1990년에 처음으로 확정하였다.

Известия, 1990년 6월 25일 자에 실린 그의 글 “Когда родился Сталин: поправка к официальной биографии”을 참조. 이 날짜는 그의 고향 고리의 교구 기록에 나와 있는데, 스피린에 따르면 1921년 한 설문지를 작성하면서 스탈린은 “자신을 젊어지게 하였다.” 왜 스탈린이 그렇게 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최근 스탈린에 대한 방대한 전기를 집필한 영국의 역사학자 로버트 서비스는 군 징집을 회피하거나 차르의 경찰에게 자신의 혁명 운동 이력에 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였을 거라고 추측한다. 서비스 (2007), 40-41쪽.

전통이 존재하였다. 특히 그루지아는 13~14세기에는 몽골-타타르의 지배를 받았고, 15~17세기에는 여러 왕국들이 서로 경쟁하였다. 또 16~18세기에는 이란과 투르크의 시달림을 받았고, 19세기에는 러시아에 의해 점령당했다.<sup>5)</sup> 둘째,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다른 어떤 국경 지방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인종 및 종교 집단들이 뒤섞이게 되면서 이 지역은 다문화적 특성을 갖게 되었다. 사회 구조와 거리의 모습들은 아시아적 특징과 유럽적 특징이 혼재하였으며, 봉건적-가부장적 생활 방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 다인종적 사회는 민족 문제가 최우선 관심사인 정당의 탄생을 일찌감치 가져왔다. 셋째, 외부의 문화와 지적 조류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입되었다. 예를 들어, 19세기 후반에 지역의 종교 학교나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재의 대학 같은 러시아 대학, 그리고 폴란드의 고등 교육 기관에 적을 둔 학생들을 통해 러시아 문학과 유럽의 문학 및 역사, 정치 등이 소개되었고, 당시 유행하던 인민주의와 마르크스주의도 수입되었다. 끝으로,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가진 수공업자,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 사이에 복잡한 상호 작용이 일어났다. 남부 카프카스 지역은 전통적인 수공업이 우세한 가운데에서도 석유와 철도, 건설, 광업 같은 근대적 공업이 급속히 발전하는 사회였다. 따라서 전근대적 부문과 근대적 부문 양 부문에서 동시에 충원된 노동자 계급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러시아 북부 지방과의 상황과는 관계 없이 1870년대에 독자적으로 파업에 돌입하는 등, 노동 운동을 발전시켰고 이는 의식적인 노동 운동 조직가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이런 네 가지 특성들로 정리되는 19세기 후반의 남부 카프카스 지방의 환경은 스탈린에게 어릴 때부터 반항심과 저항 의식을 발달시켰고, 그가 주변의 다인종적·다문화적 상황으로 일찌감치 민족 문제에 눈을 뜨는 등, 혁명가가 된 뒤는 물론이고 일국의 최고 지도자가 된 뒤에도 그의 심성과 행동에 큰 자국을 남겼다. 이런 점에서 스탈린은 리버에 따르면 한 마디로 “변경 지방의 인간”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Rieber 2001: 1651-1691).

5) 이민족의 점령과 이에 대한 저항 및 반란 등으로 점철된 그루지아의 역사에 대해서는 Suny(1988)의 특히 3장과 4장을 참조하라.

물론 그렇다고 19세기 후반 남부 카프카스의 지배적인 사회 문화적 환경만이 그의 인성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 스탈린의 가족적 배경은 그의 독특한 인격 형성을 설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 여기서는 그의 아버지의 처친 품성이 스탈린의 인성 발달에 특히 문제가 되었다. 잘 알려진 대로 스탈린의 아버지, 비사리온 주가시빌리(Висарион Джугашвили)는 인종적인 배경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루지야어를 말하는, 한 귀족 가문에 소속된 농노 출신이었다(도이처 1972: 13).<sup>6)</sup> 1864년 그루지야 지역에서 단행된 농노 해방 후 그는 구두를 만드는 가난한 직공이 되었다. 직접 가게를 열었지만 실패하고 트빌리시의 구두 공장에 취직하였다. 아버지는 가부장적인 데다가 술고래였고 아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가하였다. 스탈린의 어린 시절 고향 친구의 증언 이래 많은 연구자들은 아버지의 가혹한 매질이 궁극적으로 스탈린이 무자비한 폭군이 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한다. 친구의 증언을 인용하는 스탈린의 정적 트로츠키(Лев Троцкий)의 해석은 이 점에서 전형적이다. 즉 트로츠키에 따르면, 견딜 수 없는 매질이 스탈린의 일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면서 스탈린을 그의 아버지만큼이나 엄하고 무자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아버지가 죽었을 때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해방감을 느낄 정도로 상처가 컸던 스탈린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억압된 증오를 품으면서 “복수를 갈망”하였고, 이러한 반항심은 그에게서 궁극적으로 “자기보다 높은” 모든 권력자와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발로 표출되었다(Троцкий 1995: 26-27).

하지만 또 다른 연구자는 아버지의 억압적 성격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도 스탈린의 인격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한다(Tucker 1973: 76). 어머니 예까제리나 게오르기예브나 겔라제(Екатерина Георгиевна Геладзе)는 고리의 인근 마을에서 태어났고 그녀의 가족은 아르메니아 지주의 정원사들이었다. 예까제리나는 18세에 스탈린의 아버지 비사리온과 결혼하였다. 그녀는 정직하고 유순하며 남편에 순종적인 그루지야 여성성의 이상을 구현한 인물이었

6) 그러므로 스탈린은 공식 여권 상으로는 신분이 농민이었다. 하지만 혁명가가 된 뒤 스탈린은 공장 노동자로서의 경험이 구두 공장에서의 짧은 취업 외에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프롤레타리아 출신임을 늘 강조하였다.

지만 아들에 대한 억압과 폭력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과감하게 반기를 들 줄 아는 강인한 여성이기도 하였다. 매우 종교적이었던 그녀는 남편에게 실망한 대신 아들 소소에게 매우 헌신적이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전통적인 민담을 아들에게 들려주곤 하던 어머니는(Rieber 2001: 1657) 아들이 성직자가 되기를 원하였다. 비록 어머니의 지나친 관심과 애정이 부담스럽기는 하였지만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던 소소는 그런 어머니에게서 자신의 구원을 보았고 이 점에서 그는 어머니의 큰 영향을 받았다. 즉 어머니의 절제심과 금욕주의적 도덕성이 스탈린에게 그대로 전해졌던 것이다.<sup>7)</sup>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트빌리시의 구두 공장에 취직하였던 소소는 어머니에게서 구출되어 고리에서 정교 신학교를 위한 예비 학교를 계속 다니게 되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 소소는 공식적으로 러시아어를 배우면서도 그루지아어로 된, 비판적 현실주의자나 신앙만주의자들의 문학 작품을 계속 읽는 등 그루지아 문화를 버리지 않았다(Rieber 2001: 1658). 나중에 혁명가로서 소소가 “코바”(Коба)라는 가명을 쓰기 시작할 때 그 가명도 그루지야의 한 낭만주의 소설의 주인공으로서 러시아의 정복에 저항한 그루지야 의적의 이름에서 따 온 것이다.<sup>8)</sup>

당시 그루지야의 전반적인 지적 풍토는 인민주의의 물결 속에서 마르크스주

7) 폭군 아버지와 이상적인 어머니라는, 스탈린의 어린 시절 가족을 둘러싼 이분법적 구분은 연구자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러시아의 소설가 아나톨리 리바코프는 자신의 소설 『아르바트의 아이들』에서 스탈린의 아버지를 가정 내에서 만사를 좌우하는 어머니의 희생양으로서 채플린 같은 소시민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스탈린은 이런 무력한 아버지가 빠진 곤경을 연민을 갖고 바라보는 슬픈 관찰자로서 이 외로운 아버지와 자신을 일치시킨다. 이에 대해서는 Pomper(1990), p. 156 참조.

8) 그 소설은 카즈베기(Александр Казбегі)가 1882년에 발표한 『부친살해』(Отцеубийца)이다. 일반적으로 스탈린이 코바를 숭배한 이유가 코바의 차르 억압에 대한 저항과 고국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설명되고 있으나, 터커는 그보다는 소설의 중심 테마인 복수가 당국 자체가 불공정한 사회에서 정의를 세우는 행위로서 스탈린에게 큰 호소력을 발휘했다고 주장한다. Tucker(1973), p. 80을 보라.

의가 막 유입되고 있던 상태였다. 19세기 중반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농노들이 해방<sup>9)</sup>된 데 실망한 그루지야의 지식인들에게 인민주의는 강한 매력을 지녔다. 그리하여 1890년대 초에 마침내 마르크스주의를 포용하기 전에 거의 모든 그루지야 지식인들은 인민주의 시기를 거쳤다. 스탈린이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이기 전에 과연 인민주의 단계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없어 왔는데, 최근에 공개된 자료는 스탈린도 그런 흐름 속에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고리에도 당시 인민주의의 유명한 두 정파인 “인민의 의지”파 및 “토지와 자유”파가 존재했으며, 스탈린은 트빌리시의 신학교로 떠나기 전에 특히 1890년대까지 명맥을 이은 “토지와 자유”파에서 정기적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다. 비록 그가 얼마나 그 조직에 깊숙이 관계하고 또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말이다. 마찬가지로 스탈린이 고리에서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지도 여전히 불명확하나, 1890년대 초반까지 그루지야의 지식인들의 대다수가 마르크스주의로 개종하는 분위기에서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Rieber 2005: 29-30).

### 3. 혁명가 스탈린: 1894~1917

스탈린에게 반항아에서 혁명가로서의 전이는 1894년 그가 트빌리시 신학교에 진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미 신학교는 반정부 활동으로 유명한 상태였다. 1880년대 말부터 신학교의 일부 학생들은 바르샤바에서 공부하는 그루지야인 유학생 등을 통해 반입된 마르크스주의 서적, 특히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의 아버지”라고 보통 일컬어지는 플레하노프(Георгий Плеханов)의 초기 글들을 탐독하였다. 1930년대 말에 발표된 소련의 공식 전기에 따르면, 스탈린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15세에 “당시 자카프카지예에 존재한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접촉하면서 “지하 마르크스주의 문헌을 맛보았으며,” 그가 읽은 마

9) 그루지야의 농노 해방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Suny(1988), pp. 96-112 참조.



르크스의 『자본론』은 바로 그런 문헌들 중의 하나였다고 회고하였다. 이 공식 해석은 별다른 검증 없이 일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지만 최근의 연구는 이런 설명에 의문을 표시한다. 우선 스탈린이 접촉하였다고 하는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다른 어떤 관련 자료에도 나타나지 않으며, 따라서 그 정체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또 1930년대 말에 출간된 다른 목격담은 스탈린이 3년 뒤인 1897년에야 신학교에서 “최초의 마르크스주의 연구 그룹”<sup>10)</sup>을 조직하였다고 전한다. 셋째, 다른 문헌이나 증언을 통해 스탈린이 『자본론』을 과연 읽었는지를 확증할 수도 없지만, 설사 읽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스탈린을 마르크스주의자로 개종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였는지도 의문이다. 왜냐하면 스탈린은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나 다윈주의 문헌 등 다른 비마르크스주의 문헌들도 광범하게 읽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탈린이 마르크스주의자가 된 것은 1894년이라기보다는 그 뒤 좀더 깊숙이 지역의 혁명 운동에 관여하게 된 1897~98년 이후라고 보아야 한다(Rieber 2005: 32-34).

한편 신학교 생활은 다른 점에서도 스탈린이 혁명가로 성장하는 데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가난한 가족으로부터 거의 물질적·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학교의 교우 관계는 특히 중요하였다. 스탈린은 자신이 관여한 신학교 내의 조직을 중심으로 소수의 친구들 사이에서 열정적인 충성심을 확보하였다. 다른 사람들을 배제한, 소수의 친구들과의 밀접한 교우 관계를 맺은 경험은 나중에 혁명가 및 정치 지도자로서의 스탈린이 권력 투쟁에 돌입할 때 그 대로 재연되었다. 즉 그에게는 신뢰라는 가치가 명예만큼이나 중요한 덕목이 되었으며 배신은 가장 큰 죄악이 되었던 것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침략과 저항,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반란과 음모로 점철된 남부 카프카스의 역사적 분위기와 어우러지면서 혁명가로서의 스탈린의 독특한 인성을 완성시킨 중요한 요인이었다.

10) 이미 언급한 대로 1880년대 말에 마르크스주의 서적을 읽는 신학생 그룹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 주장 자체도 옳바르지 않다.

공식 전기에 따르면, 스탈린은 신학교 시절 동안 학교 내에서 금지된 책을 동료들과 함께 읽고, 낭만적인 시를 쓰는<sup>11)</sup> 등, 상대적으로 온건한 행동만 한 것이 아니었다. 스탈린은 신학교 시절의 막바지였던 1890년대 말에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 트빌리시의 혁명 운동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그것은 1898년 트빌리시에서 발생한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 때 명확히 드러났다. 스탈린이 1920년대 중반 트빌리시의 철도 노동자들에게 한 연설에서 회고하였듯이, 그 때 그는 자신의 생애에서 처음으로 한 무리의 철도 노동자들을 책임지는 지도자가 되었다(Сталин 1953b: 174). 스탈린이 속한 정치 그룹은 이른바 트빌리시의 마르크스주의 조직인 “메사메-다시”(Месаме-даси, 제3세대)로서 그는 그 곳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 밝혀진 바는 이러한 공식적인 설명에 의문을 던진다. 우선 메사메-다시의 지도자는 스탈린이 아니라 케츠호벨리(В. З. Кецохвели)라는, 학교 선배로서 몇 년 전 동맹 파업으로 8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학교를 떠나야만 했던 노련한 혁명가였다. 메사메-다시는 1897년 케츠호벨리가 트빌리시에 나타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1년 뒤에 가입한 스탈린은 그의 조언을 받는 풋내기에 불과하였다. 1898년 여름의 철도 노동자 파업의 경우도 일부 목격자는 이 파업이 노동자 자신들에 의해 조직되었으며 스탈린의 역할은 기껏해야 주변적이었다고 증언한다. 스탈린은 케츠호벨리의 지도 하에 처음으로 노동자들과 접촉하면서 5~6명의 노동자들과 함께 “자본주의 체제의 기제”와 “노동자 지위를 개선시키기 위해 정치 투쟁을 할 필요성”을 논의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Rieber 2005: 35-36). 이런 맥락에서 스탈린이 이듬해 1899년 5월 신학교를 그만둘 때의 상황도 다르게 설명된다. 스탈린 자신을 비롯한 공식 전기는 마르크스주의 선전 활동 때문에 신학교에서 퇴학당했다고 주장하나 당시의 학교 측의 공식 기록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시험을 보지 않고,” 수업료를 내지 않아서 퇴학당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퇴학당한 것이 아니라 신학교의 비참한 생활을 견

11) 시인으로서의 스탈린의 면모는 그 동안 거의 무시되어 왔으나, 로버트 서비스는 낭만적인 문체로 자연과 대지, 애국심을 다룬 그의 시가 당시 지역 문단에서 상당히 높이 평가되었음을 밝힌다. 서비스(2007), 79-81쪽.

딜 수 없어서(Litvin 2005: 33) 혹은 신학교 내에서의 반항적 태도나 성적 부진으로 학교를 쫓겨나기 전에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분석도 있다(서비스 2007: 84-86; Pomper 1990: 166).

여하튼 신학교를 그만 둔 뒤 스탈린은 트빌리시의 혁명 활동에 점점 더 연루되기 시작하였다. 공식 전기에 따르면, 스탈린은 1900년부터 트빌리시의 러시아 사회민주 노동당 위원회를 지도하면서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에서 비밀 인쇄소를 경영한 케츠호벨리에게 계속 지시를 내린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트빌리시에서 그의 위치는 여전히 취약했다. 왜냐하면 경찰 보고서가 밝히고 있듯이, 스탈린이 트빌리시 위원회에 선출된 것은 2년 뒤인 1902년에 이르러서였고,<sup>12)</sup> 바쿠의 인쇄소는 케츠호벨리와 나중에 유명한 볼셰비크가 된 아벨 에누키제(Авель Енукидзе)를 비롯한 일단의 다른 인물들에 의해 그 전부터 이미 잘 경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탈린이 인쇄소를 조직하고 경영하는 데 지도적 역할을 하기는커녕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의문을 품을 수 있다. 또 1900년에 트빌리시 노동자들 사이에 혁명 활동이 활성화된 것은 완전히 신참이었던 스탈린이 합류해서가 아니라 이미 노련한 활동가였던 칼리닌(М. И. Калинин)을 비롯한 일단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그해 트빌리시와 바쿠에 도착하면서 새로운 기운을 얻었기 때문이다.

1901년 스탈린은 트빌리시 위원회로부터 임무를 부여 받고 투르크 국경으로부터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그루지아의 또 다른 도시 바투미로 옮겼다. 당시 바투미에는 어떤 사회 민주당의 조직도 없었으나 사회 민주주의 선전에 종사하는 일부 그룹은 존재하였다. 스탈린에 호의적인 설명에 따르면, 스탈린은 1902년 2월과 3월에 바투미에 발생한 일련의 파업에서 미래의 볼셰비크 선동가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다른 설명은 이 파업은 스탈린이 도착하기 전에 존재한 합법적인 일요 학교 운동의 사회 민주주의적 선전 활동에 영향을 받기는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비참한 사회경제적 조건 때문에 자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었음을 밝힌다. 바투미에서 스탈린은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 활동에

12) 1901년 11월이라는 주장도 있다. Pomper(1990), p. 167을 보라.

종사하는 “이론가”(теорик)로서보다는 비밀 실천 활동에 종사하는 “음모적 혁명가”(практик)의 행태를 보였다. 왜냐하면 교육적 배경이나 기질적으로 그는 “자연 과학이나 사회학, 문화”를 노동자들에게 강의하는 것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트빌리시에서 바투미로 온 노련한 활동가들과 함께 일하면서 노동자들을 위한 선언문을 인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이 과연 사회민주당의 바투미 위원회 위원이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왜냐하면 1902년 바투미 위원회가 조직되었을 때 그 위원장은 스탈린이 싫어하던 미래의 멘세비크 니콜라이 츠헤이제(Николай Чхеидзе)였기 때문이었다. 여하튼 스탈린은 1902년 체포되어 시베리아로 유배되는 바람에 그의 바투미 시절은 곧 끝나고 말았다. 그 후 바투미 위원회는 그루지야 멘세비키의 아성이 되고 스탈린은 바투미를 완전히 떠나 바쿠에서 주로 활동하였다(Rieber 2005: 37-42).

1903년 가을 스탈린은 그루지야를 떠났으나 1904년 2월 바이칼 호 근처에서 탈출하여 트빌리시로 돌아왔고 그 곳에서 남부 카프카스 전역을 돌아다녔다. 그 후, 특히 1908년 이후 스탈린은 1912년 바쿠에서 체포되어 다시 시베리아로 장기간 유형 당할 때까지 여러 번 체포와 유배, 그리고 탈출을 반복하였다. 이런 이유로 차르의 비밀경찰인 오흐라나(Охрана)가 그를 첩자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탈출을 도왔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를 면밀히 검토한 연구자들은 주장의 근거가 된 문서가 날조되거나 혹은 잘못 이해된 것으로 밝히면서 결국 오흐라나의 첩자라는 주장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Litvin 2005: 34-35). 한편 스탈린은 혁명 후인 1919년에 나제주다 알릴루에바(Надежда Аллилуева)와 결혼하기 전인 1902년과 1904년 사이에 한 동료의 여동생인 스바니제(Екатерина Сванидзе)와 결혼하여 1908년 아들 야코프(Яков)를 두었으나 부인은 출산 직후 사망하였다. 익숙하지 못한 바쿠에서 활동하면서 결혼생활에서 안정을 찾고자 했던 그는 해체된 가족 대신에 일단의 동료들과 형제애에 바탕을 둔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sup>13)</sup>

13) 키로프(С. Киров), 보로실로프(К. Е. Ворошилов), 오르조니키제(Серго Орджоникидзе), 미코얀(Анастас Микоян), 예누키제(Авель Енукидзе) 등이 그들이다. 나중에 이들은 스탈린의 권력 장악 과정에서 충실한 협력자가 되었다. Rieber(2001), p. 1661을 보라.

스탈린이 1907년 6월 당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트빌리시 중심가의 한 우체국을 털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모든 역사가들이 동의하는 것 같다. 사회민주당이 그 전에 공식적으로 이런 행위를 금지하였지만, 1905-06년 러시아 혁명 당시 많은 마르크스주의 그룹들이 은행 강도를 통해 기금을 마련한 사실을 감안하면 스탈린의 행동이 꼭 돌출적인 것만은 아니었음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여하튼 그는 이 사건으로 당에서 축출될 위기에 놓였으나 레닌이 이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Островский 2004: 212-216, 246; 서비스 2007: 142). 이 즈음 스탈린은 런던에서 열린 제5차 사회민주노동당 대회에 참석하고 난 뒤 바쿠에 도착하였다. 1907년 스톨리핀(Петр Столыпин)의 6·3 쿠데타 이후 반동의 물결이 러시아 전역을 휩쓸 때 바쿠에서 스탈린이 어떤 생활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트로츠키가 말하고 있듯이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Троцкий 1985: 167). 스탈린은 바쿠에서 자신이 “선진적인” 유전 노동자들 사이에서 활동하면서 혁명의 두 번째 세대를 받고 “혁명의 직인”이 되었다고 스스로 평가하였다(Сталин 1953b: 174). 실제로 스탈린은 바쿠에서 누구의 도전도 받지 않은 독보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사회민주당이 노동조합을 장악할 것을 강력히 역설하면서 멘셰비키를 공격하고 또 정부 당국의 노사협조 분위기 조성 노력에 맞서 총파업을 호소하는 등, 볼셰비키 사이에서 지하 당 조직을 관리하는 가장 적극적인 활동가 중의 한 명으로 성장한 것은 확실한 듯하다(Suny 1972: 373, 382, 387).

바쿠에서의 이러한 비타협적이고 정력적인 활동은 스탈린으로 하여금 그 후 중앙의 권력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스탈린은 1912년 레닌에 의해 볼셰비키 중앙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것은 그가 남부 카프카스에 국한된 지역 활동을 끝내고 마침내 전국적인 차원의 인물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그는 막 창간된 대중적 당 기관지인 『프라브다』(Правда)를 편집하고 거기에 글을 썼다. 그리고 1912년 말부터 그 때까지 즐겨 쓰던 코바라는 가명을 버리고 강철의 의미를 지니는 스탈린이라는 가명을 쓰기 시작하였다.<sup>14)</sup> 1913년 초에는 레닌의 요청에 따라 오스트리아령 폴란드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고, 주로 빈에 머무르면서 민족 문제에 관한 소책자를

썼다. 이 체류는 2차 세계대전 때까지 스탈린이 행한 마지막 해외여행이었고, 일생 동안 가장 긴 해외 체류였다. 소책자에서 그는 소수민족의 자결권을 옹호 하였으나 러시아인 중심의 통합도 강력히 지지하였다. 이 글로써 스탈린은 1907년 바쿠 시절 시작 때부터 진행되어 온,<sup>15)</sup> 그루지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죽이고 러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전면에 드러내는 일을 완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913년 3월 스탈린은 오호라나에 의해 체포되어 4년의 유형 형을 받고 그 해 7월 동부 시베리아로 추방되어 그 곳에서 1917년 2월 혁명 때까지 머물렀다. 2월 혁명 직후 페트로그라드에 도착한 스탈린은 레닌이 4월 러시아로 돌아올 때까지 임시 정부에 대한 인정 등 타협적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레닌의 “4월 테제” 이후 당내에서 쏟아지는 레닌에 대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건한 입장을 버리고 좀더 혁명적인 레닌의 노선을 과감히 추종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말해지듯이 스탈린이 1917년의 두 혁명 시기 동안 레닌을 맹목적으로 추종한 것은 아니었다. 새로운 평가에 따르면, 그는 4월 테제를 수용한 뒤에도 여전히 레닌이 주장한 “토지의 전면적인 국유화” 대신 토지의 무조건적인 농민 양도를 주장하였고, 또 “제국주의 전쟁의 내전으로의 전화”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하였다. 나아가 트로츠키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10월 혁명의 수행 과정에서도 스탈린이 한 역할이 반드시 과소평가될 것도 아니다. 그는 4월에 새로 구성된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고 10월 혁명 때까지 『프라브다』의 후신인 『노동자의 길』(Рабочий Путь)의 편집자로 활동하면서 비록 결정적인 순간에 무장 봉기에 반대한 카메네프(Лев Каменев)의 입장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트로츠키의 공격을 받을 빌미를 제공하기는 하였지만(Троцкий 1953: 307-309), 중앙 위원으로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였다.<sup>16)</sup>

14) 스탈린은 “코바”나 “스탈린”이라는 가명 외에도 “카토”, “게코”, “스테핀” 등 많은 다른 가명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Rieber(2001), pp. 1678-1681을 볼 것.

15) 스탈린은 1906년까지는 그루지야어로 글을 썼으나 1907년부터는 러시아어로 글을 발표하였다. Rieber(2001), p. 1682의 표 참조.

#### 4. 혁명가에서 독재자로: 1918~1929

10월 혁명 후 내전과 NEP 시기를 거치면서 스탈린은 점점 당내의 일인자가 되어 갔다. 그는 1920년대 말까지 이른바 “좌, 우의 일탈파”를 물리치고 당내 위상을 확고히 함으로써 1930년대 이후에 보일 전체 군주적 독재자로서의 모습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닦았다. 많은 연구자들은 1920년 대 동안 스탈린이 궁극적으로 승리한 까닭을 그의 “기회주의적 처신” 덕분으로 묘사해 왔다. 즉 레닌의 사망 이후 그의 후계자가 되기를 열망한 스탈린은 트로츠키를 위시한 당내 좌파를 물리치기 위해서 부하린(Н. И. Бухарин)의 사회주의 건설 논리를 지지 하면서 1927년까지는 좌파를 축출하고, 그 후 우파를 몰아내기 위해서 프레오 브라젠스키(Евгений Преображенский) 등 좌파의 논리를 빌어 1929년까지는 그들을 완전히 제압하는 데 성공하였다는 것이다.<sup>17)</sup>

하지만 최근의 연구는 스탈린이 자신의 권력 장악을 위해 아무 원칙도 없이 변덕스럽게 행동한 정치가가 아니라 나름의 일관된 사상과 정책을 보여준 인물이었음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1918년부터 1923년까지 민족인민위원부 인민위원을 지낸 스탈린은 레닌이라는 당내 최고의 권위자에게서 신뢰를 상실할 위험을 무릅쓰고 그의 “민족 자결 원칙”에 과감히 맞서 자신만의 민족 정책을 추진하였다. 레닌의 민족 자결 원칙에 대한 스탈린의 반대는 혁명 1주년 때인 1918년에 이미 민족 자결을 “넓은 슬로건”으로 선언하면서 시작되었다. 1920년 말에 스탈린은 이것을 더욱 구체화시켜 “변경 지역을 러시아로부터 분리시키자는 요구는 … 바로 중앙과 변경 지역의 통합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일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선 중앙과 변경 지역의 사람들 모두의 이익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거부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Сталин 1953a: 158, 352).

16) 이 점을 특히 강조하는 서비스(2007), 258-268쪽을 참조.

17) 이런 주장 중 가장 전형적인 것을 위해서는 Daniels(1972), pp. 22-39를 보라.

이러한 차이는 1922년 후반 그루지야 문제를 둘러싸고 레닌과 스탈린 사이에 벌어진 유명한 논쟁에서 결정적으로 표면화되었다. 민족 문제의 전문가로서 스탈린은 내전이 끝난 후 신생 국가의 항구적인 헌정 구조를 짜는 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지만, 이 일은 남부 카프카스의 세 지역인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그루지야의 연방으로의 통합 문제를 둘러싸고 큰 난관에 부딪혔다. 스탈린은 이 세 지역을 우크라이나나 벨로루시처럼 바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РСФСР)에 편입시키고 싶었던 반면, 레닌은 “유럽과 아시아 소비에트 공화국 연방”을 창설하기를 원하였다. 이것은 스탈린이 다른 인종 지역을 러시아 공화국에 종속시키기를 희망하였지만 레닌은 그들 둘 사이를 좀더 동등하게 다루고 싶어 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Smith 2005: 53-54). 이런 의미에서 레닌은 러시아 민족주의를 경계하였고, 스탈린은 비러시아 민족주의를 경계하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922년 11월에 있었던 오르조니키제(Серго Орджоникидзе) 일파의 그루지야 공산주의자 폭행 사건을 스탈린과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일찍이 1960년대에, 레닌이 병상에 있던 1920년대 초반의 당내 갈등을 분석한 저명한 역사가 르윈은 비록 이 폭행을 스탈린이 직접 사주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레닌의 “유언”을 빌어 스탈린의 “대러시아 국수주의”가 결국 이 같은 불상사를 일으키는 한 배경이 된 것처럼 묘사한다. 게다가 스탈린과 오르조니키제는 나중에 스탈린의 충실한 심복이 되는 카가노비치(Лазарь Каганович), 몰로토프(В. М. Молотов), 쿠이 셰프(В. В. Куйбышев) 등과 마찬가지로 이론보다는 행동을 중시하는 실무적 타입의 “혁명의 실천가”들이라는 점에서 기질적으로도 일치한다(Lewin 1968: 43-63).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이러한 분석이 사태를 너무 단순화시키고 있음을 보여 준다. 우선 이 주장은 신생 국가의 헌정 구조를 둘러싼 레닌과 스탈린의 대립이 스탈린이 레닌의 안을 받아들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СССР)을 창설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해소되었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비록 내용적으로는 러시아 공산당이 각 민족 공화국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상위 기구의 역할을 하더라도 말이다(서비스 2007: 370). 나아가 “유언”에서 레닌이



스탈린을 비난할 때의 초점은 민족 문제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총서기로서의 자질이였다. 즉 레닌은 스탈린이 이 폭행 사건을 은폐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는 것이다. 한편 스탈린은 오르조니키제가 그루지야 공산주의자들에게 강요한 “자카프카지에 연방” 안의 입안과도 아무 관계가 없다. 그것은 오르조니키제의 주도 하에 만들어졌으며, 오르조니키제는 러시아 공산당 내에서 자카프카지에 지역 문제를 담당한 카프부로(Кавбюро)의 수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은 물론이고 스탈린이 위원으로 있던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와도 의논하지 않았다. 연방 안은 르윈이 말하는 대로 “그루지야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스탈린의 피의 복수극”이 아니라 철저히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따라 구상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루지야 공산주의자들도 연방 안 자체를 거부했다기보다는 그루지야인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르조니키제가 서둘러 연방 안을 밀어붙인 그 사실만을 주로 문제 삼았다(Smith 1998: 519-544).

스탈린이 1920년대에 좌우파의 “일탈”을 물리치고 최고 권좌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보인 사상적·정책적 일관성 중에서 우리는 “일국 사회주의론”도 무시해서 안 된다. 잘 알려져 있듯이, 1920년대 중반에 스탈린은 트로츠키의 “연구 혁명론”에 반대하여 다른 나라에서의 혁명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러시아에서 단독으로 사회주의가 건설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주장은 1927년 제15차 당 대회에서의 표결 결과 스탈린의 노선이 당의 기본 노선으로 확정된 데서 알 수 있듯이 당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는 물론 상당수의 당원들이 1917년 혁명 이후에 입당함으로써 고참 볼셰비키와는 달리 사회주의 혁명의 이상인 세계 혁명 자체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또 전쟁과 내전, 그리고 잇단 기근으로 피폐해진 러시아 인민이 전반적으로 혁명의 지속에 대해 피로감을 느낀 데 큰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탈린이 순전히 일반 당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갑자기 아무런 사상적 기반 없이 이 이론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최근의 연구는 세계 혁명과 관계없이 “한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상이 러시아의 경우만 따지더라도 1915년의 레닌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뿐만 아니라 1920년대 초반의 부하린도 이 이론에 단초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한다. 덧붙여 1924년 말에 스탈린은 처음으로

이 사상을 제시하였을 때 이 이론이 당원들 사이에 큰 동조를 일으키면서 트로츠키와의 투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Layton Jr. 1983: 80-84; Cohen 1980: 147-148, 187-188; van Ree 2005: 167-168).<sup>18)</sup>

한편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스탈린이 1920년대 동안 독재자로 부상할 있었던 까닭은 “모사의 달인”으로서 그의 노회한 “행정적·조직적 수완” 때문이었다. 즉 레닌의 추천으로 1922년 총서기가 된 스탈린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추종자들을 당의 요직에 배치하는 데 성공하였다. 총서기로서 당내 주요 직책의 인사권을 장악한 스탈린은 자신을 지지하는 충성스런 당원들을 직접 주요 직책에 임명함으로써 연방 공화국 및 하급 단계에서 일하는 당 서기들을 통제하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상급 당 기관과 당 대회들에 보낼 대의원을 선출하는 데 강력한 발언권을 갖고 있었다. 바로 이들 당 대회에 파견될 대의원의 선출을 통제하는 일은 스탈린의 성공에 결정적이었다. 즉 이들은 당의 주요 기관으로서 국가의 핵심 정책을 결정하는 당 중앙위원회를 뽑는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톰슨 2004: 320).

하지만 미국인 역사학자 해리스는 총서기직이 스탈린의 부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하였으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방식으로는 아니었음을 보여 준다. 스탈린이 총책임자로 있는 당 서기국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당 간부들의 배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으며, 스탈린이 서기국을 이용하여 직접 추종자들을 만들어내려고 했다는 증거도 거의 없다. 대신 스탈린은 트로츠키 같은 경쟁자들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당내 민주주의(분파주의)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여 경쟁자들이 자신들의 사상을 당원들 사이에 유포하는 것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당 관료들은 스탈린의 “분파주의에 대한 투쟁”을 자신들 사이의 권력 투쟁에 적용하였다. 즉 1920년대 동안 분파 투쟁은 당 정치국 지도부 사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소비에트 국가를 창출하고 확대하는 과정에서 투쟁은 모든 수준에서 발생하였다. 지역의 당 관료들은 하급 부

18) 반 리는 일국 사회주의론의 서구 마르크스주의 기원을 독일 사회주의자인 게오르그 볼마르(Georg Vollmar)와 카를 카우츠키(Karl Kautsky)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들로부터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하였고, 서기국의 개입은 이런 경쟁을 완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기 일쑤였다. 이 때 총서기로서 스탈린이 취한 분파주의 금지 조치는 바로 지역의 관료들이 자신들의 경쟁자를 억압하는 데 적절한 무기 구실을 하였다. 당연히 스탈린은 그들의 환영을 받았고 당 관료들은 생존을 위해 스탈린을 지지함으로써 그의 집권에 궁극적으로 기여하였던 것이다(Harris 2005: 63-82).

이런 식으로 1920년대 동안 당 내의 일인자로 등장한 스탈린은 급속한 산업화 및 강제적 집단화로 대표되는 1928~29년의 이른바 스탈린 혁명의 와중에서 자신의 유력한 경쟁자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독재자가 되는 데 성공하였다.

## 5. 독재자 스탈린: 1930~1953

그리하여 1920년 대 말 이후 스탈린이 독재적 권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문을 갖지 않는다. 1929년 12월 “50회 생일”에 즈음해서 스탈린은 소련의 신문지상에 열흘간에 이르는 집중적인 찬사를 받음으로써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전 국민의 지도자로서 공개적으로 찬양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스탈린 숭배는 그 후 시, 소설, 영화, 음악, 회화, 조각 등 모든 분야로 확산되었고, 2차 세계대전 발발 전까지는 “무오류의” 독재자로서의 스탈린에 대한 이미지가 소련 국민들 사이에 거의 완성되었다(툼슨 2004: 392-394). 하지만 주요 반대파들을 제거함으로써 스탈린에게 주어진 독재 권력이 바로 절대적 권력으로 등치되어서는 안 되며, 이 점에서 1930년대 이후 시기 별로 독재의 정도와 독재의 메커니즘 등을 둘러싸고 연구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스탈린 독재를 둘러싼 논란의 초점은 그가 위원으로 있던, 서방국가의 내각에 해당하는 정치국이다. 정치국은 1930년대 동안 세 차례 개편되면서 조금씩 그 구성을 달리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9~10명으로 이루어진 정위원과 그보다 적은 수의 후보위원으로 이루어져 있다.<sup>19)</sup> 우선 독재의 정도와 관련하여 많은 학

자들은 1936~38년의 대테러 이전, 특히 1930년대 초에는 스탈린이 정치국과 함께 정책을 결정하였다는 데 동의한다. 그런 점에서 이 시기의 스탈린 독재는 불안정한 “과두정”이었다. 정치국원들은 혁명과 혁명 직후의 국가 건설에 참여한 고참 볼셰비크로서 아직은 권위가 있었고 행정적으로도 정부 내에서 주요한 지위를 차지하였다. 각 정치국원들은 핵심 기관들의 수장이었으며, 그 결과 상당한 자원을 통제했고, 수많은 실무적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들은 각자 일단의 충성스런 부하들을 중앙과 지방 모두에서 거느리고 있었다. 스탈린은 물론 정치국원들의 업무에 개입할 수 있었으나, 그것은 업무의 해결을 가져오기보다는 갈등과 긴장을 낳는 경향이 있었다. 여하튼 스탈린은 각 정치국원들의 이러한 “세습 영지”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해관계를 서로 조정하면서 그들의 “제도적 이기주의”(ведомственность)를 완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Khlevniuk 2005: 109-110). 실제로, 스탈린이 이들의 권력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1930년의 제16차 당 대회에서 선출된 정치국원들과 1934년의 제17차 당 대회에 의해 선출된 정치국원들의 인적 변화를 볼 때, 이 4년 동안 후보위원까지 포함하여 약 7%만이 교체되는 데 불과한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Rigby 1986: 314).<sup>20)</sup>

하지만 이러한 과두정은 대테러가 시작될 무렵 거의 종언을 고하였다. 1936~38년의 노멘클라투라에 대한 악명 높은 대규모 숙청은 과두정을 파괴시켰다. 실제로 스탈린은 대테러 동안 쿠이비셰프, 코시오르(С. В. Косиор) 같은 정치국원 수 명을 처형하였고 일부 위원들에 대해서는 폭력을 행사하고 가족의 안전을 위협함으로써 그들을 완전히 굴복시켰다. 이제 스탈린의 개인적 권력의 원천은 정치국이나 중앙위원회 같은 집단적 정책 결정 기관이 아니라 내무인민위원회(НКВД) 같은 정규적인 국가 보안 기관들이 되었다. 주요 사안에 대한 정책 결정도 점점 기형적인 모습을 띠게 되었다. 정치국은 1936년까지 정기적인 회의가 점점 감소하면서 1937년부터는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그리하여

19) 1930년대 정치국의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Хлевнюк(1996), сс. 285-287을 보라.

20) 노골적인 주요 “우파” 정치적 반대파로서 제16차 당 대회가 있는 지 약 5개월 후 면직된 리코프(А. И. Рыков)는 제외하고 계산하였다.

1936년경에 정치국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소집되지 않았고 세 달 동안은 한 번도 소집되지 않기까지 하였다. 이것은 많게는 한 달에 10번 이상, 적게는 너댓 번을 소집한 1930년대 초반의 상황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이었다.<sup>21)</sup> 대신 정책 결정은 필요할 때마다 임시로 소집되는, 수 명으로 이루어진 최고 지도자들의 비공식적 내부 그룹(이너 서클, 일부는 정치국원들이고 일부는 그러지 않다)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 내부 그룹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정치국의 결의안으로 외부에 발표되었다. 하지만 이 내부 그룹도 스탈린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의 개인적 결정에 반대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정치국의 기능이 소멸함에 따라 스탈린의 권력은 거의 무소불위가 되어갔다(Khlevniuk 2005: 110, 114).

하지만 다른 학자는 1930년대 후반은 물론이고 1930년대 전반기에도 집단 정책 결정 기관으로서 이러한 정치국이 과연 존재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진다. 즉 그에 따르면 1930년대 전반기 이전도 포함하여 정치국은 제도로서의 집단 기관으로 존재한 적이 없었다. 정치국은 개인과 그룹의 결정 관행을 감추어주는 외관에 불과하였다. 즉 실제 정책 결정은 거의 언제나, 심지어 레닌 시절에도 최고 지도자와 몇몇 고위 측근 정치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1936년 이전과 이후는 근본적으로 다를 게 없으며, 1936년 이후에 관찰되는 제도로서의 정치국의 소멸은 원래부터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던 정부 기구가 형식적으로 그 기능이 멈춘 것일 뿐이다. 그리고 이것은 일부 연구자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스탈린의 개인적 권력이 절대 권력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크기가 큰 서방 국가에서 흔히 보이듯이 국가의 업무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불가피하게 진행된 통치 기능의 “근대화” 때문에 발생하였다. 즉 국가의 업무가 폭증하는 속에서 통치자는 모든 문제를 통괄하는 번거로운 공식적 기구에 의존하기보다는 언제나라도 소집 가능한 순발력 있는 전문화된 비공식적 모임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서방 국가들 중 1980년대 대처 수상 시절 하의 영국 정부처럼 정부와 경제의 크기가 큰 나라들

21) Хлевнюк(1996), с. 288의 표 참조.

에서 소련의 정치국에 해당하는 내각의 전원회의가 그렇게 빈번하게 열리지 않았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점에서 1930년대 동안 스탈린이 혼자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상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물론 매우 중요한 것은 스탈린의 승인이 있어야 했지만 실제로 수많은 정책들이 스탈린 없이 결정되었다. 스탈린의 부관들은 군대의 보급 문제나 고위 인사 문제, 일부 주요 경제 문제 등 상당히 중요한 결정에서 주도권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정치국원들 외에도 국가의 제도들도 상대적인 자율성을 갖고 있었다. 즉 기술 관료들과 경영진들은 언제나 체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도 않았다. 스탈린 시기 동안 각급 관료들은 자기 이해를 갖고 있었다. 인민위원, 계획가, 통제 기관, 지역 당 조직 등은 자기에게 유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자신의 의무를 줄이기 위해 서로 투쟁하였다. 스탈린은 이러한 투쟁들을 조정하는데 거의 언제나 실패하였다(Getty 2005: 83-107).<sup>22)</sup>

이렇듯 1930년대 동안 스탈린 독재 권력의 작동 기제가 본질적으로 질적 변화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1936년 대테러 이후 그의 개인적 권력이 훨씬 강화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1941년 6월 22일에 불가침 조약을 위반하고 독일이 소련을 전격 침공함으로써 시작된 독소전쟁은 이러한 스탈린의 권력을 더욱 확고히 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개전 몇 주 내에 그는 막대한 권력을 수중에 장악하였다. 원래 가지고 있던 총서기와 각료회의 의장 직 외에도 전쟁 수행 노력을 전반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신설된 국가 방위 위원회(ГКО)의 위원장, 소련군 최고 사령관, 국방 인민위원, 그리고 개전 다음 날 설치된 최고 사령부(Ставка)의 의장도 8월까지의 역임하게 되었다(McDermott 2006: 125). 이렇게 하여 정부와 군 모두를 직접 관리하게 된 스탈린은 전쟁 수행 노력 전반에 대해 직접 개인적인 통제에 들어갔다.

22) 스탈린의 정책 결정 독점 정도와 관련하여 Davies(2005), pp. 121-139도 참조할 것. 이 글에서 데이비스는 스탈린이 곡물 문제와 같이 매우 중요한 농업 문제에는 정책 결정에 깊숙이 관여하지만, 가축 문제에는 거의 관심이 없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곡물 조달이 증대되면 사료로 쓸 곡물의 양도 늘어날 것이고 이는 축산물의 증대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스탈린이 이런 개인적 권력을 이용하여 전쟁 초기인 1941년과 1942년 동안 소련군의 전략적 결정에 깊이 관여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sup>23)</sup>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스탈린의 개입이 소련군의 초기 패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데 동의한다. 군사 참모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의 고집 때문에 우크라이나 쪽에 집중적으로 병력을 배치함으로써 모스크바를 위협에 빠뜨린 것은 군사적 비전문가로서 스탈린의 무능함을 명확히 보여주는 많은 사례 중의 하나다. 전략적 후퇴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의 무모한 태도도 소련군에 큰 희생을 불러 일으켰다.<sup>24)</sup> 한 러시아인 연구자의 말을 빌리면, “그의 명령은 얼마간 충동적이고 오류에 빠져 있었으며, 피상적이고 부당하였다”(Volkogonov 1991: 419). 그러나 군사 문제에 대한 스탈린의 이러한 태도는 1942~1943년 겨울의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분기점으로 일정한 변화를 겪었다고 또 다른 연구자들은 지적한다. 잇단 패전에 충격을 받은 그는 전략적 결정에 대한 직접적 개입을 자제하고 대신 참모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군사 참모들은 독자적인 작전 계획을 제시할 수도 있게 되었다(오버리 2003: 233-234, 260). 이런 태도 변화는 소련군이 궁극적으로 독소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한 요인이 되었고, 일부 연구자들로 하여금 그의 군사적 재능을 높이 평가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평가에 따르면, 총체적으로 “스탈린은 … 복잡한 전략 및 병참 분야를 점차 습득하였다. … 어떤 수단을 썼던 간에 스탈린은 소련 정부의 단결을 보장하였고, 정부가 나치를 격퇴하는 데 헌신하도록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소련의 승리에 대한 스탈린의 기여는 그의 선전가들이 주장하는 것보다는 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것이었다”(Barber and Harrison 1991: 55).<sup>25)</sup> 이리하여 초기의

23) 예를 들어 전략적 결정을 둘러싼, 참모총장 주코프와 스탈린의 충돌에 대해서는 Kuromiya(2005), pp. 155-156을 보라.

24) 군사 지도자로서의 스탈린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위해서는 Bonwetsch(1997), pp. 185-207을 볼 것.

25) 스탈린과 함께 독소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코프도 다음과 같이 스탈린의 군사적 재능을 높이 평가하였다. “나(주코프)는 그(스탈린)가 전선의 작전을 조직하고 전선의 병력을 배치하는 데 필요한 기본 원리를 충분히 숙지한 달인이었다고 주저 않고 말할 수 있다.

대비극에도 불구하고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후 상황의 반전은 군사 지도자로서의 스탈린의 이미지를 크게 개선시켰다. 이 이미지는 그 후 스탈린이 “대조국전쟁”에서 조국을 구한 위대한 최고 지도자로 소련 국민들에게 각인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스탈린이 사망한 1953년까지는 일반적으로 “스탈린체제 절정기”로 알려져 있다. 독소전쟁의 승리로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스탈린은 이제 어느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철옹성의 권력을 구축하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개인적 독재는 최고조에 올랐고, 대신 정치적 기관들은 상호 투쟁 속에 자신들의 이해를 각자 추구하는 바람에 통합력을 상실함으로써 스탈린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는 이러한 전통적인 평가에 의문을 표명한다.

우선 스탈린은 전쟁 이후 나이 때문에 자신의 업무를 줄이기 시작하였다. 1946년 각료회의로 개칭된 인민위원부회의는 경제 문제에 대해 거의 배타적인 통제권이 주어졌고 노멘클라투라 임명 같은 일부 정치 문제는 중앙위원회 내의 다른 기관에 맡겨졌다. 스탈린은 1948년 레닌그라드 지역의 당원과 정부 관리들을 대거 숙청한 “레닌그라드 사건”처럼 필요하다면 폭력에 의존할 태세가 여전히 되어 있었지만, 매일매일의 결정에 대한 개입은 가능한 자제하였다. 이러한 스탈린의 일상적 정책 결정으로부터의 후퇴는 1936년 이전의 대테러 이전처럼 통치 행위에 있어서 정치 제도들의 역할을 다시 강화하는 것이었다. 특히 1950년부터 정치국은 스탈린이 장기적으로 부재할 경우 이런 행태를 잘 보여주었다. 정치국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면서 현안을 논의하고 그것을 심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며 결의안을 준비하는 등, 집단지도 체제 기관으로서 원활하게 작동하였다. 각료회의 하의 주요 기관들의 행태는 집단 지도 체제의

---

그는 이 원리를 철저히 통제하였고 중요한 전략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였다. 그는 뛰어난 최고 사령관이었다.” Radzinsky(1996), p. 487에서 재인용. 1990년대에 러시아인 연구자들이 출간한 주요 스탈린 전기 중의 하나인 라진스키의 이 책은 전제가 의심스런 주장에 바탕을 두고 극단적으로 스탈린을 “악마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정도 가공의 전기로 평가 받고 있다. Litvin(2005), p. 33을 볼 것.



확립에 더욱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1950년 4월에 신설된 “각료회의 간부회 부로”는 인적 구성이 정치국과 거의 동일하였으나 스탈린이 항상 이끈 정치국과는 달리 스탈린의 참여 없이 업무를 심의하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스탈린 국가 통치 행위의 중심은 점점 이러한 기관들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점에서 스탈린의 무한한 권력은 1945년 이후 실질적으로 약화되면서 통치의 과두정적 요소를 계속 재생산하였다. 이 과두정적 요소야말로 1953년 3월 예기치 않게 스탈린이 죽고 나서도 흐루시초프(Никита Хрушев)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 지도 체제가 곧 바로 등장할 수 있었던 밑바탕이 되었다(Khlevniuk 2005: 118-119).<sup>26)</sup>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죽기 전에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은 독재자 스탈린은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자신의 후계 체제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었던 셈이다.

## 6. 모순에 찬 인간 스탈린

지금까지 우리는 연구자들 사이의 여러 논점들을 중심으로 스탈린이라는 20세기의 유례없는 독재자의 생애를 간략히 기술해보고자 하였다. 그의 일생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스탈린이라는 인물은 다른 모든 독재자들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인간” 아니면 “악의 화신”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로만 파악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성격을 가졌음이 밝혀졌다. 그는 중앙의 정치 무대에서 러시아인으로서 활약하고 싶어 하면서도 그루지야인으로서 획득했던 인성적 특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고, 레닌을 자신의 영웅으로 추앙하면서도 필요하다면 그에게 과감히 도전하는 대담성을 보여주었다. 독재자가 된 뒤에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항상 주변의 동료들을 의심하였다. 나아가 한 나라의 지

26) 전후의 스탈린과 정치국의 관계에 대해서는 Gorlizki(2001), pp. 291-312도 참조하라. 이 흥미로운 글에서 고를리츠키는 스탈린 하에서 하나의 정치국이 아니라 다수의 정치국이 존재했으며, 그 중에 “스탈린이 없는 정치국”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Gorlizki and Khlevniuk(2004)의 제4장도 볼 것.

도자로서 국가의 권력 구조를 공식적으로는 끊임없이 분화시키면서도 정책 결정은 소수의 비공식 그룹에 의존하였다. 어떤 정책은 매우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결정하였으나, 많은 정책들은 부하들에게 완전히 위임하면서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이런 모순적이고 양면적인 스탈린의 행동과 성격은 지면상 다루지 못한 다른 사건에서도 확연히 특징적으로 드러난다. 가령 1939년 8월 전격적으로 체결된 역사적인 독소 불가침 협정은 그가 현실정치(Realpolitik)와 사회주의에의 헌신이라는 이데올로기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을 탄 결과였다. 스탈린은 마르크스주의라는 자신의 이념에 따라 모든 자본주의 국가를 잠재적인 적으로 보았고, 따라서 소련과 이들 제국주의 국가 간의 전쟁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하였으며, 그 승자는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체제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이런 점에서 비록 일국 사회주의론을 원칙적으로 견지하기는 하였지만 그는 “세계 혁명”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스탈린은 현실적으로 당장 이들 국가를 전쟁이나 혁명을 통해 붕괴시키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기는커녕 신생 사회주의 국가의 존속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련군을 근대화할 시간이 필요하였다. 때문에 그는 현실적 실용주의에 따라 민주주의 국가든 파시즘 국가든 관계없이 서방 어느 자본주의 국가와도 동맹을 맺을 의사가 있었으며, 바로 이것이 나치즘에 맞선 서방국가들과의 집단 안보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자마자, 즉각 히틀러와 불가침 조약을 맺는 쪽으로 급선회한 이유이다.<sup>27)</sup>

스탈린이 기반을 닦은 소련이라는 인류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지 십수 년이 지났다. 그 후 많은 연구자들이 스탈린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왔지만, 여전히 그의 진면목은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느낌이다. 그에 관한 모든 자료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그의 일생을 분명하게 밝혀줄 완성된 전기는 궁극적으로 씌어질 수 있을까?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 그것은 지금까지 논의해왔듯이 바로 스탈린 자신이 언제라도 상반된 해석을 가능케 하는 양면적이고 모호한 태도와 행동을 인생의 고비마다 보여 왔기

27) 이 점에 대해서는 McDermott(2006), pp. 117-118을 참조할 것.

때문이다. 그리하여 앞으로도 그는 지금처럼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매혹적인” 인물로 계속 남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도이처, I.(1972), 정홍진, 유완식 공역, 『스탈린』, 서울: 한림출판사. [원제: Isaac Deutscher(1961), *Stalin: A Political Biograph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서비스, R.(2007), 로버트, 윤길순 옮김, 『스탈린, 강철 권력』, 서울: 교양인. [원제: Robert Service(2004), *Stalin: A Biography*,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 오버리, R.(2003), 류한수 옮김, 『스탈린과 히틀러의 전쟁』, 서울: 지식의 풍경. [원제: Richard Overy(1998), *Russia's War: A History of the Soviet Effort, 1941~1945*, London: The Penguin Press]
- 톰슨, J. M.(2004), 김남섭 옮김, 『20세기 러시아 현대사』, 서울: 사회평론. [원제: John M. Thompson(1996), *A Vision Unfulfilled: Russia and the Soviet Union in the Twentieth Century*, Lexington: D. C. Heath and Company]
- Громан, Ш.(2007년 3월 1일 인용), “Как Москву чуть не переименовали,” <http://www.languages-study.com/berlin/stalinodar.html>
- Островский, А. В.(2004), *Кто стоял за спиной Сталина*, Москва-Ст. Петербург: Центролиграф Мим-Дельта.
- Спирин, Л. М.(1990), “Когда родился Сталин: поправка к официальной биографии,” *Известия*, 25 июня.
- Сталин, И.(1953a), *Сочинения*, Том. 4, Москва.
- Сталин, И.(1953b), *Сочинения*, Том. 8, Москва.
- Троцкий, Л.(1985), Ю. Г. Фельштинский, ред., *Сталин*, том I, Benson Vermont: Chaldize Publications.
- Хлевнюк, О. В.(1996), *Политбюро: Механизмы политической власти в 1930-е годы*. Москва.

- Barber, J. and Harrison, M.(1991), *The Soviet Home Front, 1941-1945: A Social and Economic History of the USSR in World War II*, London: Longman.
- Bonwetsch, B.(1997), "Stalin, the Red Army, and the 'Great Patriotic War'," in Ian Kershaw and Moshe Lewin, eds., *Stalinism and Nazism: Dictatorships in Comparis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5-207.
- Cohen, S. F.(1980), *Bukharin and the Bolshevik Revolution; A Political Biography 1888~193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aniels, R. V.(1972), "The Struggle With the Right Opposition," in Robert V. Daniels, ed., *The Stalin Revolution: Foundations of Soviet Totalitarianism*, Lexington, MA: D. C. Heath and Co., 22-39.
- Davies, R. W.(1989), *Soviet History in the Gorbachev Revolution*,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 Davies, R. W.(1997), *Soviet History in the Yeltsin Era*, New York: St. Martin's Press.
- Davies, R. W.(2005), "Stalin As Economic Policy-Maker: Soviet Agriculture, 1931~1936," in Sarah Davies and James Harris, eds., *Stalin: A New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21-139.
- Getty, J. A.(2005), "Stalin As Prime Minister: Power and the Politburo," in Sarah Davies and James Harris, eds., *Stalin: A New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83-107.
- Gorlizki, Y.(2001), "Stalin's Cabinet: The Politburo and Decision Making in the Post-war Years," *Europe-Asia Studies*, Vol. 53, No. 2, 291-312.
- Gorlizki, Y. and Khlevniuk, O.(2004), *Cold Peace: Stalin and the Soviet Ruling Circle, 1945~195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rris, J.(2005), "Stalin As General Secretary: The Appointments Process and the Nature of Stalin's Power," in Sarah Davies and James Harris, eds., *Stalin: A New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63-82.
- Khlevniuk, O. V.(2005), "Stalin As Dictator: The Personalization of Power," in Sarah Davies and James Harris, eds., *Stalin: A New History*, Cambridge: Cambridge

- University Press, 108-120.
- Kuromiya, H.(2005), *Stalin: Profiles in Power*, Harlow: Pearson Longman.
- Layton Jr., R. V.(1983), "Socialism in One Country," in Joseph L. Wiczynski, ed., *The Modern Encyclopedia of Russian and Soviet History*, Vol. 35, Gulf Breeze: Academic International Press, 80-84.
- Lewin, M.(1968), *Lenin's Last Struggle*, London: Faber and Faber.
- Litvin, A.(2005), "Stalin's Biography," in Alter Litvin and John Keep, *Stalinism: Russian and Western Views at the Turn of the Milleniu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32-47.
- McDermott, K.(2006), *Stalin*, Palgrave.
- McNeal, R.(1984), "Stalin, Iosif Vissarionovich," in Joseph L. Wiczynski, ed., *The Modern Encyclopedia of Russian and Soviet History*, Vol. 37, Gulf Breeze: Academic International Press, 63-72.
- Pomper, Ph.(1990), *Lenin, Trotsky, and Stalin: The Intelligentsia and Pow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Radzinsky, E.(1996), *Stalin: The First In-depth Biography Based on Explosive New Documents from Russia's Secret Archives*, New York: Doubleday.
- Rieber, A. J.(2001), "Stalin, Man of the Borderlands,"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106, No. 5, December, 1651-1691.
- Rieber, A. J.(2005), "Stalin As Georgian: The Formative Years," in Sarah Davies and James Harris, eds., *Stalin: A New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44.
- Rigby, T. H.(1986), "Was Stalin a Disloyal Patron?," *Soviet Studies*, Vol. 38, No. 3, July, 311-324.
- Smith, J.(1998), "The Georgian Affair of 1922: Policy Failure, Personality Clash or Power Struggle," *Europe-Asia Studies*, Vol. 50, No. 3, May, 519-544.
- Smith, J.(2005), "Stalin As Commissar for Nationality Affairs," in Sarah Davies and James Harris, eds., *Stalin: A New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45-62.
- Suny, R. G.(1972), "A Journeyman for the Revolution: Stalin and the Labour Movement

- in Baku, June 1907-May 1908," *Soviet Studies*, Vol. 23, No. 3, January, 373-394.
- Suny, R. G.(1988), *The Making of the Georgian Nation*,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 Suny, R. G.(1991), "Beyond Psychohistory: The Young Stalin in Georgia," *Slavic Review*, Vol. 50, No. 1, Spring, 48-58.
- Tucker, R. C.(1973), *Stalin As Revolutionary, 1879~1929*, New York: The Norton Library.
- Ulam, A. B.(1989), *Stalin: The Man and His Era*, Boston: Beacon Press.
- van Ree, E.(2005), "Stalin As Marxist: The Western Roots of Stalin's Russification of Marxism," in Sarah Davies and James Harris, eds., *Stalin: A New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59-180.
- Volkogonov, D.(1991), *Stalin: Triumph and Tragedy*, Rocklin: Prima Publishing.

원고 접수일: 2007년 3월 28일

게재 결정일: 2007년 5월 21일

ABSTRACT

---

## From a Georgian Revolutionary to the Dictator of the Soviet Union: Myths and Truths of Stalin

Kim, Namsub

This paper aims to reexamine Stalin as a Bolshevik revolutionary and the dictator of the Soviet Union, using recent researches about his biography which revise the general images of his life. As many scholars show on the basis of primary sources including recently declassifying archival materials, Stalin was a contradictory and complicated person, who can not be judged simply as “a great man” or “an incarnation of evil.” Stalin can not abandon Georgian identity, even though he wanted to be a Russian. He had the courage to challenge Lenin if he needed, while he worshiped Lenin as his hero. He was always doubtful of those close to him, even after he obtained autocratic power to condemn them to death if he wanted to. Moreover, he depended on informal “inner circle” consisting of a few people when he had to make a decision, but, on the other hand, he continued to decentralize the structure of government formally. He personally decided on some policies, but he did not even look at many other policies, leaving them in the hands of his subordinates.

In this respect, a final version of Stalin’s biography is not completed,

although many scholars, Russian and Western, have attempted to reevaluate his entire life in earnest particularly since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In addition, it does not seem to be written even after all the materials concerning him are available. It is because Stalin himself showed ambivalent and unclear attitudes and actions at every crucial moment of his life, which make possible conflicting interpretations at any time. Thus, Stalin will remain “a fascinating man,” attracting the attentions of many biographers in the future as before.